



# 하나된 지자체·의회... “지방분권시대”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어제 경기도 수원서 개막  
전국 지자체·의회 ‘한자리’  
상호 소통·협력 강화 비롯  
지역발전 선도 등도 다짐  
제주도·의회 성과 등 홍보



4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개막식에서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라일보(대표이사 김용구)를 비롯한 언론사 대표들과 전국시도의회위원장단협의회장, 기타 시군구 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티셔츠 커팅을 하고 있다. 부미현기자

2019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4일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대한민국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개막,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만나 지방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협력·소통을 진작시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막식에는 한라일보를 비롯한 공동 주최 언론사 대표들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 참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봉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한번도 자율적으로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한 경험이 없었는데,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다"며 "이번 박람회 취지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소통의 장, 둘째, 공유와 벤치마킹을

통한 학습의 장, 셋째, 협업과 융합을 통해 창조적 장을 만들고자 했다. 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 전시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행정 및 의정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180여개의 전시부스가 마련됐다.

각 지역 홍보관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차별화된 법안 발의,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 우수사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유일

의 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제주,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등 제주의 선도 분야를 선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제주 정책박람회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박람회 기간 선거·의정활동,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가 마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박람회 첫날인 4일에는 ▷초선의원 역량 강화 특강 ▷의정활동을 위한 SNS 소통 전략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분권 및 사례 ▷선거운동에 편입을 이용한 사례 소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스피치 방법 등

의 강연이 마련됐다.

박람회에 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태현 민원소통담당관은 "제주도의회가 전국적으로 인사업 독립 등 지방분권에서 선도하고 있어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제주도의회 역할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타 지역 도의회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 기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도민 열 중 일곱 “IB 교육 필요”

교육청, 정책 등 여론조사로  
“학교 교육 변화 요구” 분석  
인지도 땀 질문에 신뢰 의문

제주도민 중 69.2%는 제주도교육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62.4%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교육 현안과 정책, 교육감 업무 수행 평가' 등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청이 도입하려는 IB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2%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입이 필요하면 26.5%는 '미래사회 대비'라고 답했으며, 이어 '학교 수업문화 혁신'(22.8%), '사교육비 절감'(18.4%) 순이었다.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교육 적용 어

려움'(31.3%), '소수에 대한 특례'(27.3%), '예산대비 효과 미비'(1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대상으로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먼저 묻지도 않고 도입 찬반 여부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인지도를 사전에 조사했으면 IB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더 명확했을 것"이라면서도 "조사 결과는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현안인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2.4%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67.9%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달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웹·앱 조사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추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3.7%이다. 표상준기자

# 제주어 상담전화 이용자 절반 20~30대

제주학연구센터 상반기 집계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연구센터가 4월 제주어 종합상담실 개소 100일을 맞아 내놓은 전화상담(전자우편 포함) 분석 결과다.

이번 분석은 3월 26일 제주어 전문 상담장구인 제주어종합상담실 공식 개소 이전인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의 상담 접수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상담 건수는 총 115건이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6건

(31.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7건(23.5%), 40대 26건(22.6%), 20대 12건(10.4%) 순이었다. 20~30대를 합치면 41.7%에 이른다.

도내 이용자가 89건(7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도외에서 제주어 상담실로 문의한 경우도 26건(22.6%)으로 파악됐다.

제주학연구센터 측은 "최근 관광사에서 행사 제목 등에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문의가 꾸준히 상호명을 제주어로 달기 위한 상담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블록체인 허브도시 첫걸음부터 ‘폐적’

도, 연구용역 한차례 입찰 무효로 최근 재공고  
중소기업 제한·낮은 용역비 등 걸림돌로 작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성장동력 분야로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선정한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이 유찰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재공고했다. 입찰 경쟁입찰을 통한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배경예산은 1억 7000만원이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입찰 공고가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평가회의도 잠정 연기됐다.

제주도는 이번 유찰이 중소기업 대상이라는 입찰 제한과 낮은 연구용역비, 관련 연구기관 부족, 다른 지역에서 다수의 관련 용역 진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공고에서도 유찰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 연구용역은 거액이 투자되지만 제주는 낮은 편"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 재공고 결

과에 따라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는 오는 2021년까지 3년이다. 과업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시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로드맵 수립 ▷블록체인 시장 및 생태계 조성 위한 현황 조사 및 목표 수립 등이다.

이밖에도 ▷제주도 블록체인 기반 모델 발굴 ▷국내 및 글로벌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대 ▷중앙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및 정책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 비교 검토 및 방향, 차별화 방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활용 전략 발굴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대효과 분석 등을 연구한다.

이소진기자

**[주제주칸트리구락부 (제주C.C) 기업회생 인가M&A에 동의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의 기업회생 사건 진행  
제주cc 최대 담보채권자 한프이앤씨유한회사가 2019.3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이 재판부에 의하여 이른바 P플랜(신속처리 절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운영위에서는 6월 초 위 기업회생절차 개시 회원동의서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회원보상비율의 타결  
M&A회생사인 한프는 회원보상비율로 재판부 면전에서 입회금의 50%를 (현금20%즉시지급 + 20%3년3회분할지급 + 10%이용권지급)제시하였고 이 보상비율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운영위에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하여 현금30% 즉시지급 + 20% 이용권 지급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이용권도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 2019.7.20.까지 회생계획안(사전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운영위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동의서 양식과 함께 간략한 설명서를 우편송부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회원은 제주벤처마루 606호 운영위 임시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64-759-8091

**제주칸트리구락부 회원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대표 위원장 박근식 배상

**중국명문공립 허얼빈이공대학교 입학설명회**

★ 중국어 HSK 등급없이 본과 입학

허얼빈 이공대학은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 성 허얼빈에 있는 공립 공업대학으로, 헤이룽장 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다. 1950년대 초에 세워진 허얼빈 이공대학은 오늘날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과, 인문학과, 법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미국의 트로이 주립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영국의 런던 대학교를 비롯해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제주대학교 등 10여개 국가 대학 및 연구소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일시: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제주 퍼시픽호텔(제주시 서사로 20)  
▶ 강사: 전허얼빈이공대학교 국제문화교육학원 한국학생입학교육 백상국 교수  
▶ 추천학과: 대외한어과

◆ 허얼빈이공대학교 장점  
- 중국어 집중교육으로 졸업 후 취업경쟁력 제고  
- 예비과정 없이 4년제 본과 입학으로 유학기간 1년 이상 단축  
- 수능성적이나 중국어 등급시험인 HSK등급 취득 없이 입학 가능  
-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포함한 총 유학비용이 국내 사립대 등록금 수준  
- 중국 최고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허얼빈에 위치한 동북지역 최대 국립대학  
- 철저한 학사관리를 자랑하는 중국교육부 선정 우수 명문대학교  
- 중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기숙사 등 학생 편의시설과 환경

참가신청대상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학부,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

◆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 전화 및 방문 신청

**제주 입학 대행처 : 동남유학**  
☎ 064-745-3666, 010-2691-24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5층

**제5회 제주감물염색 시연회 및 4·3 그 시절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공고**

창립10주년기념 감물염색 시연회 및 고증사진 의상 작품재현과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화해와 상생으로 4.3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오니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

- ◆ 감물염색 시연회 : 2019. 08. 17.(토) ..... 08:30 ~ 14:00
- ◆ 감물의상 고증사진 및 의상 전시 ..... 10:00 ~ 14:00
- ◆ 4.3 그 시절 향토음식 경진대회 ..... 11:00 ~ 14:00
- ◆ 개회식 ..... 11:30 ~ 12:00

1. 향토음식 신청서

출품자	성명	향토음식명	연락처	비고
				2019.07.26. 신청마감

2. 전통음식 서류심사 선정 후보는 출품음식(5인)을 행사당일 10시까지 행사부스에 전시하고 심사 질의답변을 준비한다.

3. 전통음식 수상자와 감물고증사진 의상 재현 작품은 10주년 기념행사 때 전시하고 시상한다

**일시 : 2019년 08월 17일(토) 08:30~14:00**  
**장소 : 4·3평화공원잔디광장 (평화센터 건물 서측)**

2019.07. 03 .

**제주 4·3 희생자 유족 부녀회장 오정희**

전 화 : 756-0500, 사무국장 010-2598-6113, 재무이사010-8662-5742  
문서제출처 fax.756-6679 / 010-2598-6113 / ojhtex@hanmail.net